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대표 얼굴을 만나다!

높은 완성도와 차별성을 지닌 다양한 장르의 공식참가작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국내 32작, 해외 18작 등 총 13개국 50여 작품 중 개·폐막작을 포함한 국내외 8작의 공식참가작을 소개한다.



1 천사의 광장(개막작) _ 컴퍼니 그라떼 씨엘(프랑스, 에어리얼 퍼포먼스)

도시의 넓은 공간에 펼쳐진 빌딩들의 꼭대기를 와이어로 연결하여 열린 공간을 구분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며, 인간과 도시의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한다.

2 카오스모스(폐막작) _ 그루포 푸아(스페인, 에어리얼 퍼포먼스)

연극, 서커스, 무용이 결합한 공중 퍼포먼스를 멀티미디어, 라이브뮤직과 함께 선보이는 컨템포러리 예술단체인 ‘그루포 푸아!’는 1998년 창단 후 독창적인 창작세계를 인정받아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20여 개 국가에서 200여 회 공연을 하며 거리예술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3 관성모멘트(어떤 그런 순간들) _ 1984 + 4 / 1984 + 4(한국, 거리무용)

관성은 습관이다. 우리의 관계가 끝났어도 내 습관은 그대로이다. 타이머가 울리며 두 남녀는 테니스공을 주고 받는다. 타이머가 종료된 걸 알지만, 일정한 운동에 최적화되어 있던 내 몸의 관성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관성에서 파생된 일상적이지만 비일상적인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한다.

4 닥터 랄랄라의 이상한 병원 _ 음악당달다(한국, 음악극)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며 목청껏 노래하는 지저분한 행색의 의사 ‘닥터 랄랄라’. 그러나 허름하고 기괴한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에는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닥터 랄랄라는 기타를 치고, 수술용 풍선처럼 불어 익살스러운 소리를 내며 관객들을 이상한 병원으로 이끈다.



5 맨 오브 스틸 _ 모던테이블(한국, 거리무용)

무용수들이 그리는 리듬과 동작 간의 텐션 ‘구별짓기’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을 담은 리듬과 움직임은 언어와 춤이 나뉘지 않고, 음악과 춤이 분리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하나인 시절을 그리며 차등과 차별을 이야기할 필요 없는 진짜 몸짓을 선보인다.

6 이시미 _ 극단 사니너머(한국, 마당극)

인간들이 무자비하게 버린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어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이시미가 펼치는 마당극. 신명나는 풍물 장단과 흐드러지는 태평소 가락에 맞추어 선보이는 꼭두각시 인형들의 탈춤과 익살스러운 재담은 유쾌하면서 의미 있는 재미를 선사한다.



7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 안산 _ 모다트(한국, 거리무용)

생존을 위한 방랑의 길을 걸어온 이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 과거와 현재를 넘어 생존을 위한 이주를 해야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낯설지도 않은 또 다른 거리 안산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그들의 현재를 지역 기반의 리서치를 통해 물어나간다.

8 페어서커스 : 타임 앤 러브 _ 캄보디아 페어서커스(캄보디아, 서커스)

단순한 몸의 묘기를 넘어선 서커스 공연. 성을 초월한 사랑과 평등, 그리고 그것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다양한 기예와 함께 유쾌하게 풀어나간다.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안산문화광장 교통통제 안내

통제구역
네스앙스(고릴라극장) 사거리 ⇄ AW 컨벤션 사거리 양방향
통제기간 동안 우회도로 및 대중교통, 도보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메인교통통제 구역 경찰 및 모범운전자 30명 배치
- 우회도로로 교통통제지역 전문안전요원 20명 배치 (경호업체)

문의 : 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031-481-0536)
문화예술과(031-481-2068)



안산문화재단 강창일 대표이사,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말하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Ansan Street Arts Festival)는 2005년부터 매년 5월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거리축제 한마당으로 '거리에서의 새로운 문화 발견'을 지향하며, 일상의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이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여는 강창일 대표를 만나 올해 축제에 대해 들었다.

Q. 축제 슬로건 '지금, 우리는 광장에 있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A. 예전부터 광장은 저항과 혁명의 공간이자 뜨거운 함성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우리는 광장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지금 서로 위축되지 않은 몸짓으로 마음껏 표현하고 표출하며 각기 다른 말투와 목소리가 섞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축제 슬로건을 '지금, 우리는 광장에 있다'로 짓게 되었습니다.

Q.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첫 번째로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던지는 예술가들이 함께합니다. 거리예술은 시민들의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변모시키고 다른 시각으로 발견해주면서 일상 위에 포개진 형태로 드러냅니다. 따라서 거리예술은 장소가 지닌 기억과 연행되는 공간에서의 삶을 허투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 예술가들의 시선에 주목합니다. 아시아 인으로서 바라보는 세상과 그들이 겪는 권력과 사회적 시선의 불편함에 대해 다소 친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안산은 많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정착한 곳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부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그들의 목소리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도시축제로서의 확장입니다. 그동안 백화점식 나열로 공연이 배치되어 온전히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 광장이 지니고 있던 카니발적인 성격의 떠들썩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 전역으로 공연이 분산 배치되고 다수의 작품들이 특정 장소예술의 형태로 도시 곳곳으로 스며들어갈 것입니다.

Q. 13개국 50여 작품 중에서 놓치지 말고 꼭 봐야하는 작품을 감상 포인트와 함께 추천해주세요.

A. 무엇보다도 개막작과 폐막작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막작인 '천사의 광장(Place des Anges)'이라는 작품은 프랑스 팀인 'Compagnie Gratte ciel'이 선보이는 작품으로 순백의 옷을 입은 천사들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5월에 눈이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깃털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국내에 정말 많은 공연과 축제들이 있지만 밤하늘에서 내리는 새하얀 깃털을 맞는 경험은 흔하지 않은 경험인데요. 축제의 개막을 함께하는 관객 모두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사해주고 싶어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입니다. 폐막작은 스페인 팀인 'Grupo Puja'의 '카오스모스X도도랜드(K@osmos+DoDo Land excerpt)'입니다. 라이브밴드의 파워풀한 연주를 배경으로 관객의 눈앞에서 우주로의 향해가 펼쳐집니다.

Q. 작년 축제에서 시민이 대거 참여해 지역민이 함께 즐겼던 프로그램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시민과 함께하나요?

A. 열린 공간임에도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5월 7일(토)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광장을 예술가가 아닌 시민들의 자유로운 몸짓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축제기간 동안 광장 곳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원하는 발언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도시발언대'라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공동의 건축물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던 체험형 설치미술 프로그램 '시민의 건축'은 플라스틱 칼라박스로 소재를 바꿔 광장 전역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기본 모토는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시민 중심의 공연축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여러 힘든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산의 희로애락을 안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관객이 안산 소재의 미술관, 공연장, 체험장을 연계 탐방할 수 있도록 관객 편의서비스도 높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안산문화재단 강창일 대표이사

안산시
행정부서
둘러보기

5

U-정보센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해요

더 살기 좋은 안산, U-정보센터가 만들어갑니다

☎ 문의 : 안산시 U-정보센터(031-481-3381)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U-정보센터(상록구 향가울로 200[사동])는 2010년 4월 개관해 통합관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업무를 맡고 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용 CCTV(77곳 1,704대)를 설치해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14개 모니터로 32명이 8명씩 4개조로 3교대 근무를 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늘 상주해 모니터링하면서 포착되는 응급 상황들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안산시에 설치된 교통용 CCTV 237대를 통해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 수집, 분석·가공, 제공한다. 센터 내 상황실에서는 안산시내에서 발생하는 도로 상황과 기기 상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원격으로 단속하여 버스와 일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동일 계장은 “정보센터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CCTV를 활용해 여성과 아동,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보았다.

통합관제센터 송왕희 조장에게 듣는다

Q. 모니터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A. 봄철에는 치매환자, 노인, 어린이 등 미 귀가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정보센터로 통보가 오는데 신고가 빠를수록 빨리 찾을 수 있다. 치매환자 미귀가 통보를 받고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찾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는 경우도 많다. 범인을 검거하고 예방하는 것과 함께 삶의 소소한 기쁨을 되돌려주는 경우도 많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세밀히 관찰해야 한다. 한번은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5분 이상 계속되는 이 상황을 모니터링해 범죄를 예방한 적이 있었다.

Q.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비상벨이 있다는데?

A.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비상벨이 있다. 위급 상황에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로 신호가 오게 되어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어린이들도 손이 닿도록 벨의 위치를 아래로 옮겨 부착하는 작업을 마쳤고 초등학교에서 이 벨 누름 교육을 하고 있다.

Q.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시민들이 비상벨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주차를 가까이 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간혹 벨 근처에 바짝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벨을 누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진짜 위험한 상황에 벨을 누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길 바란다. 간혹 쓰레기 무단투기도 포착되는데 깨끗한 안산과 벨을 누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무단투기를 삼가주기 바란다. 안산시청의 기술적인 문제 지원과 경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안산이 되도록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을 갖길 바란다.

교통정보센터 이정원 주사에게 듣는다

Q. 교통정보 흐름을 볼 수 있다던데?

A. 안산시 U-정보센터 홈페이지(<http://its.iansan.net>)로 접속하면 안산 주요지역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통정보, 구간소요시간, 돌발통제정보, 상습정체구간 등 확인 가능하며, CCTV 도로 영상과 버스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Q. 버스정보시스템(BIT) 설치 후 달라진 점은?

A. 처음에 신기하게 여기던 버스정보시스템이 편리함을 느껴며 이제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다. 96%의 정확성을 가진 BIT 시스템은 안산시 1,114개소 버스정류장 가운데 694개소에 설치돼 있다. 올해 50여 곳에 BIT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시스템이 고장났을 경우 자체적으로 고장 신호를 수신하게 돼 있는데 오류로 수신 안 될 경우가 종종 있다. 시스템 복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고장 신고를 해주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세계적인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양대 산맥 안산에 오다!

제1회 생태계서비스 아시아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측정 및 활용 논의

안산시는 2016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안산시 한양대(에리카) 게스트 하우스에서 ‘생태계서비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제1회 생태계서비스 아시아지역 총회’를 개최한다.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의 위원장인 루돌프 드 흐룻 교수(네델란드 바흐닝헨 대학)와 공동 위원장인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호주 크로포드 대학) 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며 국내 전문가 및 공무원,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배움과 교류의 풍성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두 교수의 인연은 깊다. 1997년 <네이처>지에 지구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원의 가치가 연간 33조 달러(1995년 기준)에 이른다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도 생태계 가치에 대한 논문으로서 가장 많이 회람되는 업적을 남겼다.

드 흐룻 교수와 코스탄자 교수는 지난 2014년에도 지구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45조 달러로 새롭게 추정, 발표하여 경각심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3조 달러에서 20.2조 달러에 이르는 생태계서비스가 손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존 경제학자들의 가치 추정 방식으로는 공유재인 자연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기초연설을 맡은 코스탄자 교수는 이러한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이 추구하고 있는 실행 목표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포함한다. 생태계서비스라는 용어는 2005년 유엔이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유엔환경계획(UNEP)이 진행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경제(TEEB)」 보고서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2008년에 결성된 국제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은 현재는 세계 전역에서 1,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65여 개 전문 그룹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안산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기도, 자연환경국민신탁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안산환경재단, 램리서치 코리아가 후원하는 이번 아시아지역 총회에서는 △ 생태계서비스 리더양성 교육 △ 아시아 생태계서비스 회원총회 △ 5명의 기초연설과 23개의 전문 워크숍 △ 생태탐방 △ 네트워킹데이 △ ‘탄소발자국 지우기 기금전달’ 행사 등이 진행되며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www.trust.or.kr/kesnet-conference-2016에서 하면 된다.



우리 마을
지식창고에
들르면
다양한 안산을
만날 수 있어요

안산의 역사를 담은 「안산시사」부터 각종 연구 보고서까지 다~ 있다!



‘안산시가 운영하는 우리마을 지식창고에서는 분야별 백서, 시민 생활안내, 안산의 역사를 담은 도서 등 다양한 안산을 만날 수 있으며 안산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우리마을 지식창고’가 고잔동에 개소했다. 고잔역 자전거 보관소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문을 연 ‘우리마을 지식창고’는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도서와 간행물을 안산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시청 행정 자료실에 보유중인 각종 행정자료들을 이곳으로 옮겨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내가 사는 도시를 더 잘 알아가고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개소된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오늘 오전에도 시민들이 들렀는데 고잔역을 이용하면서 잠깐 시간이 날 때라든지 친구를 기다릴 때 책을 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생겨 좋으며 시민들 반응이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높고 낮은 책꽂이에 책들이 가지런하다. 안산시사부터 문화, 예술, 시정, 환경, 생태, 재정, 통계, 공공기관 간행물, 연구보고서 등 3천여 권의 책이 비치됐다. 그 외 안산 곳곳 소개와 여행정보 자료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반도서도 준비돼 있어 고잔역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우리 고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마을 지식창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다.

☎ 문의 : 우리마을 지식창고(031-481-0267)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품
안간 대부도



대부도의 자랑, 대부포도를 찾아서

대부도에는
여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지만,
해마다 늦여름과 초가을 즈음이면
우리의 코를 자극하는
향긋한 포도 내음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저기에서
탐스럽게 영글어 가는
과실들은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안산의 보물섬, 대부도가 키워내고 주민의 땀방울이 모인 <포도>

안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포도는 대부도의 자랑이자,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산업이라 할 수 있다. 6.25 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포도가 생산되었으나 이는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20년이 지나 1977년부터 일부 농가가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자 각 농가에 유행처럼 퍼져나가 지금은 마을 농가의 90%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대부 포도는 육지 포도에 비해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적인 포도산지인 칠레나 프랑스 등의 공통점은 바로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으로 대부도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대부도 천혜의 입지조건에서 생겨나는 바닷바람, 강렬한 햇빛, 큰 일교차,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그리고 농민들의 수고스러움과 정성으로 포도는 매해 소중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오랜 포도의 산지를 증명하듯 포도의 재배 및 출하 방식은 크게 4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포도로 가장 먼저 출하된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천막을 치고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로 방풍막을 치는데 이것을 중헌 마을에서는 '치마를 두른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치마를 두르는' 포도를 '비가림 포도'라고 한다. 세 번째는 치마를 두르지 않고 천막만 치는 '비가림 포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출하되는 포도가 노지 포도이다.

다양한 이름으로 만나는 대부포도

포도의 대표적인 산지인 만큼, 이를 연구하는 농민의 노력은 다양한 재배 및 출하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산업 및 축제가 열리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 중 '그랑도또 와이너리'는 대부도에서 재배된 포도로 와인을 생산하고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20개국 3천600여 종 와인이 출품된 국제와인평의회에서 은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작된 <안산대부포도축제>는 1999년 <대부포도축제>로 이름을 바꾸어 포도 수확철인 9월,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축제 기간 중에는 포도 직거래 매장, 대부포도 경매 이벤트, 포도 품평회, 포도 빨리 먹기, 포도씨 멀리 뱉기, 대부 포도주 시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는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워하는 행사의 백미이다. 이처럼 지역의 특산물을 농민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져 한 해의 결실을 공유하고 즐기는 <대부포도축제>는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2007년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되었다. 알알이 탱글탱글 여문 포도에는 대부도의 바다, 바람, 태양, 땀, 기쁨이 배어 있다. 바다가 주는 또 다른 선물, 대부포도. 벌써 가을날의 만남이 기다려진다.

글 박진



국제미술 봄 축제 ‘제13회 안산국제아트페어 AIAF’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국제적 미술 봄 축제인 ‘안산국제아트페어’가 열린다. ‘아트페어’란 그림, 조각, 공예, 설치 등 다양한 미술품을 감상하는 ‘전시’와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페어’라는 마켓 개념의 전시를 말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안산국제아트페어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하며,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국제아트페어에서는 7개국(한국, 일본, 홍콩, 아르헨티나, 프랑스, 체코, 브라질) 204명 작가들이 출품한 2,5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외국작가 18명, 한국작가 186명이 참여하며 총 107개의 개인전 부스형식으로 국내외 유명작가 부스 초대전을 운영한다. 대작의 국내외 유명 초대 작가전과 20개 대학 회화계열 2016년 졸업생 42명이 참여하는 아트페어 로드전도 함께 진행된다.

안산국제아트페어 김명산 회장은 “아트페어를 통해 국내외 유명 미술가의 작품은 물론 대학 학과장이 추천한 청년 작가들의 신선한 시선으로 표현된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산국제아트페어가 차세대 예술가를 찾아 성장시키고, 새로운 작품들이 전시되는 장이 되어 안산이 세계적인 미술의 도시로 나아가도록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1,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5월 6일(금)부터 11일(수)까지, 2부는 13일(금)부터 18일(수)까지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개막식은 5월 7일 오후 5시다. 2시부터 학생미술실기대회가 함께 진행되며 수상작은 14일 시상을 한다.



문의 : 안산국제아트페어 사무국(031-485-0488, www.aiaf.kr)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문화재단 기획공연(5월)



클래식
경기실내악축제 with 강동석

공연일정 2016년 5월 14일(토) 5PM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출연 강동석, 김영호, 유영욱, 김다미, 김상진 등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중학생 이상 추천)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공연내용 국내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감독 강동석 그리고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경기실내악축제!
플룻 최나경, 바이올린 김다미, 비올라 김상진, 첼로 조영창, 피아노 김영호, 선우예권, 클라리넷 로망 귀요, 하프 나현선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최고의 연주자들이 빚어내는 따뜻한 음률.
5월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줄 클래식 공연을 만나보자.



뮤지컬
빨래

공연일정 2016년 5월 26일(목) ~ 5월 28일(토)
공연시간 목, 금 청소년 단체관람 회차 / 토 3, 7PM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출연 이지숙, 이준혁, 김효숙, 김송이 등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공연내용 뮤지컬 <빨래>는 2005년 초연 이후 ‘한국뮤지컬 대상 작사상, 극본상’, ‘SFCC Awards 외신기자상’, ‘더뮤지컬어워즈 극본상, 작사·작곡상’ 등을 수상하며 관객은 물론 평단에서도 인정받는 우리나라 대표 창작뮤지컬로 자리잡았다. 뮤지컬 <빨래>는 우리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는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 목, 금요일 회차 학교의 요청에 따라 공연시간이 결정됩니다.(문의 481-4028)



함께 있으면 그저 좋은 사람들과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분홍 진달래가 산 여기저기 피고, 연둛빛 이파리가 고개를 내미는 봄날, 하루쯤 한적한 숲길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편한 운동화를 신고, 배낭에 물과 간식을 챙겨서 시멘트 길이 아닌 흙길을 하염없이 걸어보는 그런 여행 말이다.

비행기 타고 제주 올레길까지 갈 필요 없다.

안산에도 마을과 마을을 잇고, 산과 산을 이어주는 정취 있는 옛길이 있다.

한적한 토요일, 일동 청룡사 뒤편에 있는 성태산 능선을 따라 부곡동으로 이어지는 안산옛길을 걸었다.

좁은 오솔길을 고요히 걷다 보니 어쩐지 편안하게 속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150m의 높이의 성태산은 처음에 오르막길을 조금 오르다보면 금세 정상에 닿게 되는 작은 산이다.

하지만 이 작은 산은 안산에서 삼국시대 유적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태산성의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2000년에 지표조사가 된 후 발굴되지 않아, 지금도 정상 근처에서는 기와조각과 토기 조각, 무너진 성벽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성태산성의 무너진 돌무더기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영화 '화양연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완이 오래된 사원의 구멍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을 봉인했던 것처럼,

그 돌무더기 속이라면 오래 간직한 비밀 하나쯤 숨겨놔도 좋을 듯싶었다.



데이트하기 좋은 숲 ;
성태산에서 시작되는 안산옛길

좁은 오솔길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꼭 정상을 가기위해 산을 오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태산 능선을 따라 너구리산 쪽으로 향하는 길은 흠길을 걷는 기쁨을 알게 해주는 코스다.

산길을 걷다보면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과 이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헤매는 일마저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성태산에서 시작하는 길은 너구리산과 수암봉, 군포의 수리산까지 연결된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종일 산 속을 헤맬 수 있는 코스도 짤 수 있다.

물과 간식 정도만 들고 간단하게 성태산에 올랐다면 약수터까지 걸어와 부곡동으로 하산하는 트래킹 코스도 추천할만하다.

중간에 제일CC 골프장이 내려다보이는 나무데크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쉬기도 하고, 운동기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오랫동안 산속을 걷다보면, 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속도와 감각들이 있다.

새소리, 발끝의 감촉, 꽃과 잎의 미세한 빛깔 등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자세히 보게 된다.

이번 주말에는 좁은 오솔길을 걸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감정에 귀 기울여 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다 문득 길에서 토기조각을 발견하듯 속에 담아둔 오래된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토록 시인이 되고 싶었던 청년에게! 「시인 동주」 저자 안소영 작가를 만나다



영화 '동주'가 작지만 강한 울림으로 대중과 교감했다. 2월 17일 개봉한 '동주'는 5억 원의 초저예산으로 116만 명이 넘는 관객을 극장에 불러 모으며 장기 흥행을 이뤘다. 지난 4월 19일, 관산도서관에서는 「시인 동주」를 쓴 안소영 작가와 함께 시인 윤동주를 추억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책만 보는 바보」, 「다산의 아버님께」, 「갑신년의 세 친구」의 저자 안소영 작가에게 윤동주의 삶과 문학 이야기를 들었다.

Q. 「책만 보는 바보」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후 작품의 주인공들도 역사 속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실존인물의 이야기를 주로 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저의 가장 주된 관심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흔적을 남기며 살았던 사람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그 과정을 통해 인간에 대해 많이 배웁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 인물에 입입하고 밀착해서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사람에 대해 알아갈수록 인간이란 게 뭔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며 이해하게 됩니다. 제 책은 흔히 말하는 소설과는 다릅니다. 「시인 동주」도 그냥 '윤동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시인 동주」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그동안 냈던 책은 19세기 개화기 청년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20세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제강점기에 관한 이야기가 부담스러웠지만 그 시대에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했죠. 그러던 중 시인 윤동주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윤동주는 맑고 고운 서정시를 썼는데 저항시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이런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것에 의문이 들면서 암울한 시대에 그렇게 맑고 고운 시를 쓸 수 있었던 윤동주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Q. 소설 제목이 신선하게 와 닿습니다.

윤동주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인데 「시인 동주」라는 제목은 '시인'을 강조하기 위한 건가요?

A. 윤동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말로 시를 썼어요. 당시 세상에 자신의 시를 드러내고 독자의 공감을 받는 길은 전부 막혀 있었죠. 우리말을 끝까지 쓰면서 내면까지 깊이 들어가 조선 청년의 저항을 표현했던 거예요. 살아생전 그토록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시인으로 불리지 못했던 청년에게 책에서는 '시인 동주'라고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Q. 윤동주의 시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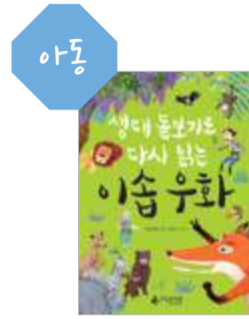
A. 윤동주는 쉬운 시어를 썼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그 시가 가슴 깊이 들어오잖아요. 보면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지만, 그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동주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주변의 자연과 사물들도 그곳까지 데려가 일렁이는 감성들을 충분히 무르익게 하고, 때로는 예리한 지성의 바늘로 톡 건드리기도 하면서 마침내 정제되고 아름다운 우리말의 체에 걸러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맑고 고요한 눈을 잃지 않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할까요.

Q. 책 속에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의 고뇌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A. 시인 윤동주가 일본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되는 해에 「시인 동주」가 출간됐습니다. 이 70년이란 시간은 시인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지낸 세월입니다. 시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슬픔과 절망에 잠긴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잔혹한 말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시 그려본 시인의 삶과 시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안산 / 4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4월엔 지구생각, 환경생각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솝우화

저자 국립생태원 / 출판사 국립생태원

그동안 만났던 이솝 우화 속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숨은 교훈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엮은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솝 우화'는 그 속에 담긴 생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2,500년이 넘는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그 속에 숨은 생물과 환경의 새로운 비밀까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이솝 우화'를 만나보자.



나는 자연에 투자한다

저자 마크 터섹, 조너선 애덤스 / 출판사 사이언스북스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 관념을 무너뜨리고,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에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 주는 책이다. 책을 통해 자본주의와 생태주의의 경계를 넘어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미래 사회를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탄소문명

저자 사토 겐타로 / 출판사 까치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의 대부분은 물론이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DNA도 탄소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음식, 집, 의복 등도 탄소가 만들어졌다. 즉 인류의 문명은 탄소를 토대로 세워진 '탄소 문명'이다. 이렇듯 인류와 깊은 연관을 맺어온 탄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들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왔으며, 오늘날에도 탄소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은 '탄소 문명'인 우리 사회를 형성시킨 탄소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미래를 전망한다.

빛하나 봉사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공유하는 것이 봉사의 시작이다



빛하나 봉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새내기 봉사단체이다. 2015년 몇몇 지인들의 뜻을 모아 시작한 일이 지금은 회원 300여 명의 든든한 지원과 50여 명의 활동회원이 주축이 되고 있다. 회칙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박용남 회장이 중심이 되어 감사 및 임원, 회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조직적이고 현실적인 봉사계획을 실천해 가고 있다.

올해 시작한 일은 지역 주민 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 우선 차상위 계층 20여 명을 목표로 4인 1조가 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만큼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중요시하며 순수한 봉사모임의 뜻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감독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꾸준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빛하나 봉사회 회원 김송희 씨는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나를 내어주는 것에 인색해하고 남보다 내가 우선 이어야 하는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변화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함께하는 빛하나 봉사회가 자랑스럽다.”며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빛하나 봉사회는 학술활동, 사회봉사, 복지·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계획하고 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틀을 세우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빛하나 봉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우리 지역의 동아리

웃음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최고의 명의 ‘신바람 웃음보따리’ 동아리



울긋불긋한 가발, 짹짹 고무신, 과장된 몸짓과 익살맞은 표정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관객은 다름 아닌 요양원, 요양병원, 경로당 어르신들이다. ‘신바람 웃음보따리’는 2012년 12월 안산시평생학습관 웃음체조 수강생들이 결성한 동아리다. 웃음체조를 하며 한바탕 웃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했던 회원들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웃음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5세, 총 20명의 회원 중 50대는 3명, 나머지가 60~70대 회원이다. 동아리를 이끄는 한무숙 씨는 웃음 체조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레크리에이션, 라인댄스, 마술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만 12개가 된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은 전문 강사로 활동하기 전 로보캅 봉사단원으로 선부2동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나갔다가 배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웃음체조를 해드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여러 곳에서 요청이 들어와 다양한 곳에서 수업과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웃음체조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마술, 풍선아트, 라인댄스 등과 같은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올해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동아리 회원들과 난타를 배울 계획이다. 난타를 배우는 비용은 안산시평생학습관 우수 동아리에

선정되어 지원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회원들은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었고 웃음체조 수업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워서 남 주자’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웃지 않는 사람 중에 한국인이 꼽힌다. 그러나 웃을 수 없는 딱딱한 현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늘고, 요리를 하면 요리가 늘고, 많이 웃으면 웃음이 늘다. 하지만 무엇이든 혼자 하기보다 함께 했을 때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함께 웃을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요양원에서 계시는 84세 된 어르신이 웃음체조를 꾸준히 하신 결과 지병이었던 호흡기 질환이 호전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혈당이 낮아지기도 해 병원 정기검진 때 의사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의

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그만큼 웃음이 주는 치료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어르신들과 보호자를 통해 이런 얘기를 전해들을 때 동아리 회원들은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웃음은 전염이다. 건강한 웃음을 전파하는 ‘신바람 웃음보따리’회원들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명의로 통한다.

김은미 명예기자 _ iam34@hanmail.net

브라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전거 배워 안산시내는 페달로 타고 다닐래요 안산시 자전거무료교육 11월까지 열린다

주부 천 모 씨(52세·일동)는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갈 생각이다. 또 웬만한 안산시내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페달로를 이용할까 한다. 그동안에는 자전거를 탈 줄 몰라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 4월 초 '자전거무료교육'이라는 현수막을 발견하고 4월 15일 자전거교실에 등록한 이후 늘 마음속에만 있던 생각을 실행하기로 했다.

자전거교실은 안산시 생활체육회 자전거 동호회가 운영한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화랑유원지, 상록수체육관, 민속공원 자전거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명의 강사가 주중과 주말로 나눠서 강습한다. 자전거를 전혀 탈 줄 몰라도 이곳에서 배우면 지도자단계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화랑유원지 교육장에서 강습을 진행하는 강현숙 씨는 6년 전 이곳에서 처음 자전거

를 배워 4년 전에 지도자 자격을 땀다. 그는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특히 등산 같이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 아니어서 아무리 허약한 체질의 사람일지라도 자전거를 타면 탄탄한 허벅지 근육과 함께 명량한 기분까지 덩으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교실에 처음 등록하면 맨 먼저 교육장에 비치된 헬멧, 팔꿈치·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전거를 끌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되는데, 이 방법은 신기하게도 자전거 타기의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는데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와 어느 정도 친해지면 비로소 자전거를 고정시켜 놓고 페달을 밟게 된다. 페달 밟기는 자전거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강현숙 강사는 발 앞쪽을 이용해 페달을 밟아야 힘이 들어간다고 하며 발바닥 움푹 파인 부분이나 뒤꿈치로 페달을 밟는 것은 잘못

된 방법이라고 했다.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고 빠르게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몇 백번 이고 페달을 돌리게 한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익혀야 넘어지지 않고 균형도 잡히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된다.

자전거 타기는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도 살리고 기쁜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올 봄 자전거교실을 수료한 안산사람들이 주말에 온 가족과 함께 페달로를 타고 물 오른 수변공원을 도는 모습을 그려본다. 주말은 화랑유원지에서만 교육을 진행하며, 공휴일은 휴무다.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5)
국민생활체육 안산시 자전거연합회(031-413-1684)
백미란 명예기자 _whity0218@naver.com

된장·고추장
사서 드세요?
이젠 직접 담가
보세요

'저염 건강 전통 장 아카데미' 열려



지난 4월 11일 영농법인 상록수 된장마을 대부도 체험학습장에서는 메주를 빚어 직접 장을 담그는 '저염 건강 전통 장 아카데미'가 열려 주부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통장 아카데미는 5월 25일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총 6회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조상들의 훌륭한 음식문화 유산인 발효 식품에 대해 알아보고, 콩을 삶아 메주를 띄워, 된장과 간장으로 분리하기까지 장 만드는 방법부터 발효원리까지 살펴 볼 수 있다.

안산의 25개 동 중 여러 곳에서 참여한 주민 48명이 여섯 명씩 8개조로 팀을 이뤄 수업 첫 날인 11일부터 실습에 들어갔다. 상록수 된장마을 측에서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 삶아 놓은 콩을 절구 공이로 찧고, 틀에 넣어 메주를 만들었다. 전해 내려오는 방식대로라면 가을 추수가 끝난 뒤 메주를 쑤어 겨우내 띄워야 하지만 "온도와 습도가 최적으로 맞춰진 숙성실이 있어,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전통방식의 한계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상록수 된장마을 김영석 대표는 말했다.

메주를 다 쑤 다음에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콩알메주(콩알 한 알을 속성으로 발효시킨 메주) 한 말을 가지고 저염 된장을 담갔다. 맛있는 장을 담그는 데에는 물과 소금의 비율이 무척 중요하다. 이날 실습에서는 비중계와 달걀을 이용해 염도를 일반 된장에 비해 1도에서 2도 정도 낮은 18도

로 맞췄다. 소금물에 달걀을 띄워 500원 동전 크기만큼 떠오르면 적절한 염도라고 했는데 비중계로 염도를 측정해보니 신기하게도 딱 목표한 18도가 나왔다. 가정에서 비중계 없이 적정염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전통장 아카데미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우리 몸에 좋은 우수 발효 식품이지만, 아파트로 대부분 바뀐 거주형태와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 밥상에서 멀어진 전통 장의 현재의 모습과 다시금 발전시키고 지켜가야 할 미래를 짚어보고, 이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배워볼 예정이다. 실습으로는 '저염 간장 만들기'와 '대부도 포도 고추장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다.

안산시 식품위생과 유현 과장은 "안산주민들이 전통 장 제조법을 배워, 조상들의 훌륭한 음식문화도 이어가고,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카데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전통 장 아카데미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열려 전통방식을 살린 제조비법이 안산 주민 사이에 넓게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 문의 : 안산시 식품위생과(031-481-2232)
백미란 명예기자 _whity0218@naver.com

너를 생각하며 가장 아름다운 꽃을 담았어 '다시, 봄. 너희를 담은 시간' 展 열려



“엄마는 아직 잘 모르겠어. 왜 지금 여기서 너희를 꽃 속에 담아 그리워해야 하는지... 우리, 그 이유를 밝혀낼 거야. 꼭! 엄마에게 힘을 주렴.”(‘다시, 봄’ 전시 中)
두 번째 맞게 되는 4월의 봄, 갑자기 아이를 잃은 엄마들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4월 27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다시, 봄. 너희를 담은 시간’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들의 고통스러운 내면의 풍경들이 한 땀 한 땀 수놓인 전시다. 손에 땀을 흘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스런 기억들 때문에 엄마들은 지난 2년간 어디에 있던 끊임없이 바느질을 하고, 글씨를 쓰고, 뜨개질을 했다. 거리에서도, 온마을 센터에서도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다. 분향소에는 ‘엄마의 이야기공방’이란 공간이 진작부터 만들어질 정도였다. 어찌면 손으로 땀을 흘리며 만들어 내는 행위 자체가 엄마들이 슬픔의 면역을 키우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꽃의 향연이었다. 전시장에는 유난히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다. 아마 가장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예쁜 꽃을 담은

것으로 표현됐을 것이다. 압화로 만든 스탠드와 향초, 액자를 전시한 꽃누르미 작품들에는 아무 해석도 없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이 전해졌다. 꽃신에 정성스레 놓인 작은 꽃잎들에 아이를 기다렸던 애끓는 마음이, 스탠드와 향초를 수놓은 형형색색의 꽃잎들은 아이라는 한줄기 빛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스탠드의 아련한 불빛 사이로 보이는 미수습자 9명의 이름과 수많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오래도록 새겨지게 될 것 같았다. 엄마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완성했다는 ‘304’라는 작품은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이 나비가 되어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색색의 꽃잎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꽃밥’이란 작품에는 아이들에게 단 한 끼라도 맛있는 밥을 지어주고 싶었던 엄마들의 애절한 마음이 그릇에 꽃잎으로 수북이 담겼다. 차웅 어머니에게 전시를 준비하며 느꼈던 것을 들었다.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 만든다는 생각으로 평소 아이가 좋아하던 색, 좋아하던 꽃을 고르면서, 만드는 순간만큼은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열심히 만들어 놓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전시회에도 못 오는 엄마도 있다.” 평소 넉넉한 성품

으로 씩씩하게 주변을 토닥이던 차웅 어머니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이 밖에도 ‘다시, 봄’ 전시에는 원예와 퀼트, 캘리그래피 등으로 완성해낸 유가족들의 다양한 공예작품들을 볼 수 있다. 10개의 교실에 있던 아이들의 자리를 상징하는 모형의 자에는 원예로 만든 꽃다발들이 정성스럽게 놓였고, 리스 작품들은 아이를 향한 엄마들의 영원한 사랑을 굳건히 말해준다. 단원과 아이들의 얼굴을 사진 그대로 십자수로 완성한 완준엄마의 대형작품도 눈에 띄고, 아들과의 추억이 없어 후회하는 아빠를 위해 바느질로 둘만의 추억을 만들어준 진혁엄마의 작품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전시장 한쪽 편에서는 엄마들이 관람객들에게 압화엽서와 원예 책꽂이 만드는 법을 전해주는 체험코너를 진행한다. 시간이 된다면 엄마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가 힘이 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세월호 2주기 '진실을 향한 걸음', 긴 행렬 이어져

비 맞으며 함께 걷던 시간, 봄을 기다리다



올해 4월 16일에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마치 아이들의 눈물을 연상시키는 비를 맞고 나서야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털 수 있었던 하루, 어느덧 안산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았다. 아침부터 유난히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산 합동 분향소에는 종일 전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평소 적막감이 감돌던 분향소의 공기가 이날만큼은 사람들의 온기로 뜨겁게 차올랐다. 이날 준비한 5천 송이 국화꽃이 오전에 이미 동이 났는데, 다시 공수해온 꽃마저 몇 시간 안에 동이 날 정도였다.
오후 2시에는 단원과 희생학생들이 살던 동네를 시민들과 함께 걷는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가 이어졌다. 행렬의 맨 앞에는 풍물패가 길을 열었고, 그 뒤를 9명의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를 형상화한 거대인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얼굴을 의미하는 종이탈과 꽃만장 행렬이 이어졌다. 행진은 분향소를 출발해 선부동을 돌아 단원고를 지나는 5km 코스로 진행됐다. 낮은 담벼락에서 놀던 동네 꼬마아이들이 해맑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고, 근처에서 근무를 하던 복지관 직원들은 '잊지않겠다'는 메모를 들고 행진을 응원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 참가자 중에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다양한 조형물들을 만들어 온 팀도 있었다. 성미산 마을에서 온 학생들은 직접 만든 노란 나비 솜대를 나눴고, 안양에서 온 마을공동체는 커다란 조각보를 함께 들고 행진에 참여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옆에서 행진하던 아이들이 조각보 천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어느새 이동하는 조각보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작은 놀이터로 변했다. 문득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어른들이 고민하던 주제가 떠올랐

다. 아이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는 것. 그런 엄청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근심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도 그렇게 함께 지나갔다.
단원고등학교를 지날 때는 희생 학생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416기억교실을 둘러보려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사이후 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다림과 아픔,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긴 10개 교실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췄다. 그 망연자실의 시간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책상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들을 읽어나갔다. 딸이 너무 보고 싶어 책상 앞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던 엄마의 심음소리가, 친구 뒤통까지 더 열심히 살아내겠다는 아픈 다짐의 목소리가 교실 곳곳에서 메아리쳤다.
걷기행사가 끝난 후에는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추모문화제 '봄을 열다' 행사가 이어졌다. 304명의 북소리 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9명의 미수습자를 기다리는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날 유경권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내 동생들과 친구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니, 그래 그만하면 됐어. 엄마아빠 수고했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서로 끝까지 기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모문화제는 304명의 시민 합창단이 부르는 '잊지않을게'와 '같이살자'란 노래로 끝맺었다. 비를 맞으며 함께 기억하던 사람들의 연대에서 진실의 봄이 조금씩 움트길 기다려 본다. 🌸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호수
공원의
꽃

봄이 익어가고 꽃들도 자리를 바꾼 안산호수공원.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듯 한 시민이 튤립을 사진기에 담고 있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갈대
습지
공원

습지는 생명의 발원지와 같은 곳이다.
안산갈대습지공원에 가면 한껏 물기를 머금은 생물들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텔레비전 끄기와 가족간의 대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 툭 던지고는 저의 방으로 들어간다. 아이는 가방만 내려놓곤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다.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친구랑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모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나 프로그램에 눈을 주면서 밥을 먹는다. 식사 시간 내내 오가는 대화는 거의 없다. 식사가 끝나면 나는 이내 소파에 누워 신문을 뒤적이다 9시 뉴스와 스포츠 뉴스를 기다린다. 10시가 넘으면 아내는 다시 드라마를 시청한다. 밤이 이슥하고 자정이 가까워지면 가족들은 각자의 꿈나라로 떠난다.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는 차 안에서, 혹은 걸어가면서도 끊임 없이 문자를 보낼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이다.

“너희들, 오늘부터 저녁 식사 때는 휴대폰 방 안에 놔두고 나와. 알았지?”

이렇게 가족간 대화가 없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어느날 저녁밥을 먹다가 아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아이는 친구들이 문자하는 걸 어떻게 안 반냐고 항변하며 돌직구를 날린다.

“그럼,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텔레비만 봐요?”

순간 찬물을 짝 끼얹은 듯한 식탁 분위기. 아이들 항변도 틀린 건 아니다. 나도 사실 매일 TV를 켜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가족은 ‘신사협정’을 맺었다. 식사 중 부모는 TV를 안 켜기로 하고 아이들은 핸드폰 방안에 놔두고 오기로. 아이들에게 식사시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 부부도 TV시청 시간을 확 줄이고 나니 저녁 먹는 시간이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다. 떨그럭, 떨그럭... 식기에 숟가락 부딪치는 소리만 들릴뿐이었다. 식사 시간에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었다. 처음의 어색함이 지나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우린 역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너 이번 새학기에는 어떤 친구 사귀었니?”

“친구요? 음... 미술을 엄청 잘하는 애요. 나중에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될거래요” 금세 알찬 답이 나온다.

“주말에 엄마랑 안산 향토사박물관에 함께 가보지 않으려? 옛날 것도 많고 너희들이 참 보는 것도 있을텐데”

어느새 아내도 아이들과 가까워지려고 대화를 준비해 온 것이다.

“그래. 그런거 보려면 전통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겠네. 미리 책도 좀 읽어봐.”

나도 거들었다. 작은 시도이지만, 벌써 시작했어야 할 식사 시간 가족간의 대화. 우리 가족은 벌써 수다쟁이들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천(단원구 원곡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예방하는 |



흰줄숲모기 국민행동수칙 알려드려요

• 흰줄숲모기 특징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매개하는 모기
 전국적으로 분포, 주로 숲, 숲근처 주거지, 공원의 숲 등에 서식

• 개인보호 수칙

야외 활동시 올바른 의복 착용

야외활동시 밝은색의 긴바지와 긴소매 옷 착용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도록 품이 넓은 옷 착용
 바지 밑단을 신발이나 양말 속으로 집어넣어 착용
 신발의 상단, 양말, 바지 밑단에 기피제 처리

개인청결 유지 및 모기장 사용

숲 등 야외 활동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샤워를 하고 땀을 제거
 야외 취침시 텐트내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

개인청결 유지 및 모기장 사용

기피제 사용시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농도와 처리시간 준수
 2세 이하 어린이는 기피제를 사용하지 말 것
 모든 어린이에게 30% 이상의 DEET를 사용하지 말 것
 얼굴부위는 눈, 코, 입 주위에 기피제를 묻지 말 것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올바른 기피제 사용법 확인하기
 (식약처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홍보물자료 ▶ 기피제)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in 안산

< 야간 운동교실 회원 모집 >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가족과 함께하는 야간 운동교실로 건강을 지켜 보아요~

2016년도 야간 운동교실 회원모집

상록 단원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규칙적인 운동습관 정착을 위해 안산시 생활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권역별로 야간 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16. 4. 1. ~10. 31.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상록구-

장 소	운영요일	시간	장 소	운영요일	운영시간
호수공원	월, 수, 금	20:00~21:00	상포공원	화, 목	20:00~21:00
석포공원	월, 수		반월공원	화, 목	
성포공원	월, 수		용마공원	화, 목	
은마수공원	월, 수		대우7차당수변공원	화, 목	
갈매운동장	월, 수		시남운동장	화, 목	
노적방폭포	월, 수				

-단원구-

장 소	운영요일	운영시간	장 소	운영요일	운영시간
생태공원	화, 목	19:00~20:00	관산운동장	화, 목	19:30~20:30
외동체육공원	화, 목	20:30~21:30	문배미공원	월, 수	20:00~21:00
민속공원	화, 목	20:00~21:00	방미공원	월, 수	19:30~20:30
중앙공원	화, 목	19:30~20:30	문화공원	월, 수	20:00~21:00
방미공원	화, 목	20:30~21:30	화정천	월, 수	20:30~21:30
				월-금	06:00~07:00

- 접수방법 : 광원에서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단원보건소(☎481-3493) 상록수보건소(☎481-5930)
- 내 용 : 에어로빅, 스트레칭, 새천년 건강 채조, 라인댄스 등



2016년 제1회 안산시 장애인생산품·체험 박람회

장애인의 가치있게 나누어요, 다함께



일시
2016. 4. 30. 토
12:00-17:00(행사 14:00)

장소
안산문화광장
(전망대광장)

주최 | 안산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장애인생산품 홍보 | 천연비누, 베이커리, 더치커피, 봉제(락업복), 무한잉크프린터 등 다양한 체험활동 | 천연비누공방, 석고방향제, 기초수화 배우기 등 *체험활동 참여 시 봉사시간 3시간 인정

문의 | 안산시청 사회복지과 031-481-2203, 2879

시승격 30주년 정신보건 20주년

마음건강 어울림한마당



첫째날(4.28) 뮤지컬 4번 출구

둘째날(4.29) 대시민강좌 '부부, 무엇으로 사는가'

강사 '박성덕' EBS 달막걸로 책임전문가, 가족-부부치료전문가, 정신건강이학과 전문의

셋째날(4.30) 정신건강 체험 한마당

4월 28일(목) PM02:00
정신건강이과
뮤지컬 4번 출구
PM 02:00-04:00
안산문화광장 1관 달막걸로

4월 29일(금) PM02:00
시승격 30주년, 정신보건 20주년
대시민 강좌
PM 02:00-04:30
안산문화광장 1관 달막걸로

4월 30일(토) PM01:00
정신건강이과
정신건강 체험 한마당
PM 01:00-04:30
25시 송의 광장(안산시청 2층) 25시 송의 광장, 체험부스

문의 및 사전등록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031)411-7573

주최 | 안산시 주관 |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안산시홍익문화재단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제15회 안산전국여성 백일장

일시 2016년 5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시상식 오후 4시 30분

장소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내 호수공원

문의 010-3725-8786, 010-5682-2672

모집처 한대앞역 하차 2번 출구 한양대학교 ERICA 셔틀버스이용
중앙역 하차 2번 출구 21번 버스 탑승

참가대상 20세 이상 미등단 전국 성인여성 누구나 가능

참가부문 시, 수필(접수 당일도 가능, 시제 당일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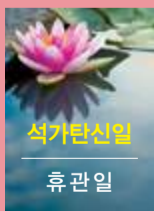
참가신청 안산여성문화회 홈페이지 접수(<http://cafe.daum.net/ansanwl>)

2016년 5월 주말 영화상영

| 단원어린이도서관 주말 영화상영 프로그램 |



5/07(토)



5/14(토)



5/21(토)



5/28(토)

장소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어울림터))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의 단원어린이도서관 ☎ 481-3856,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 두릅의 효능

당뇨병 예방 효과

단백질이 많고 지방, 당질, 사포닌 등이 들어있어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추어 주어 당뇨병에 좋습니다.

피로회복 효과

두릅의 쓴 맛을 내게 하는 사포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줘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 맛있는 두릅 고르는 방법

- 두릅손이 연하고 굵은 두릅이 좋습니다.
- 잎이 찢지 않는 두릅이 좋습니다.
- 향기가 강하고 껍질이 마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 맛있는 두릅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후 신문지에 싸서 냉장실 채소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향을 즐기는 채소이므로 구입하신 후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특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 두릅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